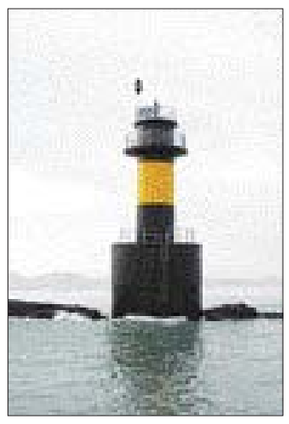
## 안개 많은 조도 앞바다 '등표' 불 밝힌다

### 14km 거리서 불빛 식별
### 항해 선박 교통안전 도모



진도군 하조도 해상 암초에 설치된 '흑서등표<사진>'가 5일부터 불을 밝힌다.

흑서등표는 높이 15m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4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8마일(1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불빛을 식별할 수 있다.

또 가동 여부를 24시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

하조도 일대는 연중 많은 안개와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화물선·여객선과 조업 어선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은 "하조도 해상에 등표가 설치돼 항해 선박의 해상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인근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이정표 역할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방음벽 설치해 주세요"

### 목포 대양동 아이엠 로즈빌 아파트 주민들 호소
### 국도1호선 관문 위치 자동차 소음에 문 못열어

목포시 대양동 아이엠 로즈빌 아파트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05년 준공된 아이엠 로즈빌 아파트는 현재 3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목포 관문인 국도 1호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시외버스와 대형 트럭 등 영암과 해남, 진도 방면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다.

그러나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은 밤낮으로 울려대는 자동차 소음으로 폭염속에서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응급차와 견인 차량 사이렌소리와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 등으로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교통량이 적은 2번 국도 옆 옥암동이나 인구밀도가 적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왜 이곳만 제외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준공 당시와 지금은 교통량이 큰 차이가 나 소음 정도 역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도로변에 건축되더라도 소음이 65데시빌 이하면 방음벽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준공 허가를 내줄 당시인 2005년 소음 발생이 기준치 이하였기 때문에 방지 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목포시는 그러나 도청이전과 조선산업 활성화 등으로 매년 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소음을 재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붕괴된 흑산 일주도로 '사고 위험'** 흑산도 관광일주도로가 붕괴된 채 장기간 방치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달 12일 초속 38m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비리 약수터 앞 도로 20여m가 붕괴됐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목포서 은빛 갈치 낚시 체험을"

### 15일부터 이틀간 축제
### 청소년 댄스 등 행사도

'제 5회 목포 은빛 갈치 축제'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목포 평화광장과 평화바다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총 700만 원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되는 '갈치 낚시 대회'를 비롯해 '청소년 뮤직 및 댄스 페스티벌', 유명가수 초청 '7080 콘서트', 평양예술단 초청 특별공연, 가족사랑 가요제 등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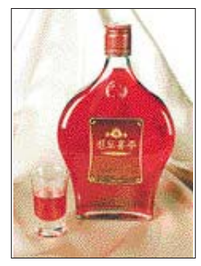
이와 함께 어린이와 여성, 관광객을 위한 갯바위 갈치 낚시 체험 행사와 갈치 요리 시식회와 먹을거리 장터 등 푸짐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갈치 낚시 대회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며 참가자는 접수 순 300팀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군수품질인증 '진도 홍주' 2차 출시

### 지리적표시제 마크 획득



진도군이 추석을 앞두고 최근 군수품질인증 '진도 홍주'를 2차 출시했다. <사진>

이번에 출시된 진도 홍주는 군수 품질인증은 물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진도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지리적표시제 마크'와 '진도 홍주'라는 상표권을 획득한 제품이다.

진도군은 규격기준 및 제조법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로 진도 홍주를 국내 최고의 전통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통 민속주인 진도 홍주는 쌀과 보리를 원료로 만든 곡주에 한약재 지초를 사용, 지초주(芝草酒)로 불리우며 고려시대 이후 진도군에서만 전승 제조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진돗개 혈통 고정사업 착수

### 암캐 150마리 사육자 지정 지원

천연기념물 제 53호인 진돗개를 세계적 명견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구체화됐다.

진도군은 올해를 '진돗개 혈통관리 원년'으로 선포하고 1억 3천400만 원을 투입, 우수 혈통견 매입 및 민간 위탁을 골자로 하는 진돗개 혈통 고정사업에 착수했다.

군은 암캐 150 마리를 마리당 75만원에 매입해 위탁 사육자를 지정, 관리 하고 사육에 필요한 사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장기적으로 암캐 300마리, 수캐 80마리를 목표로 최소한 3대 이상의 혈통견을 확보해 국제 수준에 맞는 진돗개 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진돗개 고유 혈통 보존과 혈통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우수견 관외 반출 방지 및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진도개 진도축협'이 관리해 왔던 등록관리 업무를 지난 2월 회수하고 ▲진돗개 혈통관리 프로그램 개발 ▲진돗개 출산 증명서 발급 절차 투명화 ▲진돗개 수시 심사 실시 등 진돗개 명견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中어선 불법조업 특별 단속

### 금어기 끝나 3천여척 조업 시작
### 목포해경, 내달말까지 경계강화

"서남해 황금어장을 사수하라"

목포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달부터 중국 어선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중국내 항·포구에 발이 묶였던 3천여 척의 유자망 어선들의 조업이 시작됐다.

목포해경은 이에따라 중국어선의 본격 출어가 예상되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5일간을 '중국어선 불법 조업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는 등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경은 EEZ에서 어업지도선, 해군 등의 지원을 받아 공백 없는 해상 경비망을 구축하고 항공순찰 등을 통해 중국 어선 분포를 사전에 확인한 뒤 경비함정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141척을 나포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光州日報 지사안내

| 동부권 | | 서부권 | | 중부권 | |
|---|---|---|---|---|---|
| 여 수 | 653-8444 (686-8584) | 목 포 | 276-9200 | 나주시 | 332-5544 |
| 광 양 | 792-8111 | 무 안 | 452-8535 | 나주군 | 332-7764 |
| 보 성 | 853-9700 | 해 남 | 534-5151 | 화 순 | 374-4423 |
| 순 천 | 746-8111 | 완 도 | 554-6677 | 장 성 | 392-7000 |
| 고 흥 | 833-9900 | 영 광 | 351-0055 | 담 양 | 383-8111 |
| 녹 동 | 842-2121 | 신 안 | 243-3758 | 영 암 | 473-2340 |
| 구 례 | 783-8111 | 진 도 | 543-0100 | 장 흥 | 863-8822 |
| 곡 성 | 362-8111 | 강 진 | 433-8355 | 광 산 | 944-0444 |
| | | 함 평 | 324-8111 | | |

곽내영교육학 문제풀이특강 529-0090